

목어 보리수는 '고려수'



며칠 전에 읽은 중국 오대에 활약한 영조소님의 법문이 너무 인상 깊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어떤 스님이 영조소님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을 나누게 된다. "깨달음의 나무(보리수) 아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데 어떤 것이 깨달음의 나무입니까? 영조소님이 대답하길 '꾸준하게 연마하는 나무(보리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물길 '어째서 꾸준히 연마하는 나무와 같습니까? 스님이 말하길 '본래 훌륭한 말이 아닌데 어찌 책의 그림자야 수고를 끼치는가?' <경덕전등록>

우리는 깨달음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돈오니까 어느 순간에 불현듯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더하여 꾸준한 수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정한 천재나 타고난 사람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몇몇에 불과한 소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 영조소님의 법어는 시사성이 많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복권이나 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 통계상으로도 그것은 천만분의 일에 의지하는 게임과 같다. 그렇다면 일확천금을 얻어 화려하게 살려는 생각에 들뜬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마하는 나무를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 주변은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 이 사회가 그것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식을 지울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위화감 속에서 저지 않은 피해의 식과 소외감을 지니게 만들며, 부패한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제도라는 이름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국민들의 의식을 짓눌러도 되는 것인가. 영조소님의 법어처럼 꾸준히 연마하는 나무를 키우는 사회, 정직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가꾸는 것임을 잊지 말자.

차차석(동국대 역경위원)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영원한 안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메타포가 정당하다면 '폭력은 찬양할만한 영원한 생명현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정

불자 세상보기



구승희 동국대 교수 윤리학

서와 마찬가지로 폭력 역시 인간의 비합리적인 정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공격성이 '생명속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신경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기 전부터, 철학자들은 폭력성

이란 생명력, 창조성의 표현으로 이해해 왔다. 사실 인류의 생존의 역사는 두 가지 투쟁의 기록이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투쟁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에 대한 투쟁의 역사'이

가 필연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제도적인 폭력장치인 국가의 등장도 폭력의 행사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작은 개인적인 폭력이 보다 큰 제도적인 폭력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의 생명 권력인 폭력권 행사의 기회가 봉쇄됐고, 긍정적인 생존 감정인 공격성은 사라졌으며, 개인은 영리하지만 유순한 동물이 됐다. 이런 조건을 '문명화'라 부른다.

철학자들의 희망은 아주 순진한 발상이다. 과학·기술 문명이 폭력을 키우는 토양이라는 사실은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체르노빌의 재앙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다.

지난 3월 발간된 <사이언스> 최신호는 TV시청과 폭력성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논문을 실었다. 이 연구는 뉴욕주 북부에 사는 707명을 청소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문명 발전과 폭력의 관계

다. 앞의 것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뒤의 것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폭력을 제도화한 것이 국가이다.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정의·불의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압적인 권력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홉스가 의도했던 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homo homini lupus')이라는 자연상태의 인간의 폭력성과 이에 대한 국

그러나 문명이 진보하면서 제도적인 폭력 역시 더욱 정교하고 세련되게 진화했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 없는 안정과 평화의 지속'이라는 현대의 보편적 기원은 '폭력 장치의 정교화'에 다름 아니다. 문명화된 평화로운 세상이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에 의해 개인의 폭력이 통제된 상황이다. 폭력이 소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문명화된 세상에서 폭력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국가

관찰한 결과 청소년기에 하루 1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폭력, 그것은 도덕적 일탈일까 아니면 심각한 정신질환일까. 19세기 사람들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정신이상'으로 이해했다. 신경과학과 정신병리학이 발전한 20세기에 와서 그것은 '정신병적 성격장애'로 규정되었다. 폭력적인 사람의 정서생활은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3월 26일 조계종 제 11대 중정에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이 추대됐다. 붓다뉴스 설문조사에 참여한 81명의 네티즌 불자 가운데 44명(54%)은 중정스님

"수행풍토 향상 주력해야" 54%

이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승단의 수행풍토 향상을 꼽았다. 또한 17명(20%)은 포교기반 강화를, 9명(11%)은 사찰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7명(8%)은 정계자 사면을 통한 종단 화합을, 4명(4%)은 승가 교육의 제도 보완이라고 응답했다.

조계종 중정의 임기에 대해서는 60명(74%), 현행 5년(1차 중임가능)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2일 발간한 <승가교육> 제4집에서 '21세기 승가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청정승가상 구현의 길'을 주제로 다뤘다. 여기에서는 기초·기본·재교육·승가고시 등 네 분야

승가초교육 내실화 방안

행자교육의 목표는 승단에 첫발을 내딛은 초발심 행자들에게 수행자로서 평생 지녀야 할 소양을 습득케 하고 출가정신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점차 조직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실에 맞춰 승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행자가 과거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번뇌를 비우지 않아 출가생활을 중시하지 않거나, 본사나 말사가 행자를 사찰 유지 위한 노동력이나 문종세력 확장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초발심·출가 의미 유지되게 유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사찰에서 행자교육을 담당하는 스님과 행자간의 면담이나 교육 점검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둘째 사중 스님들이 행자들의 마음을 잘 살펴 보리심을 굳건히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초발심의 중요성과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수행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행자 스스로가 항상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야 하고, 행자교육지침서에 입각한 기초교리강좌를 본사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강의해 그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자교육원 정상화도 필수적이다. 현행 행자교육 교과과정에서 '불교사 개설' 과목을 신설해 불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승가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사 및 승역사의 자질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열린마당 21세기 승가교육방향

월호스님(쌍계사 강사)

강원대학교과정 개선안

강원과 대학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삶과 교육의 분리나 결합이냐에 달려 있다. 즉 강원 교육은 삶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강원의 교과목은 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로부터 뛰어난 교육여건을 제대로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실상사의 '작은 학교'는 강원교육 체계에 그대로 적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일반교과를 자주 늘려 대학식 교육을 담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서의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체험교과 같은 부분에 비중을 두고 정규과목으로 설정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실상사 '작은학교' 적용해볼만

3단계 학제를 가진 대안학교는 현대식 교육 방법과 전통 강원식 교육 방법을 병행해 전문화됨이나 동국대에 진학할 사람과 선수행 할 사람을 동시에 양성하고 있다. 교과체계는 일반교과와 체험교과, 주제교과로 나누어진다. 일반교과에서는 중학 3학년 과정에 필요한 지식체계를 가르치고, 체험교과에서는 직접 농사일을 해 자치적인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나무 다루기 등을 통해 실용적인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역사문화기행 등을 통해 세상에 대한 경험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주제교과에서는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 아침 명상과 몸 다루기를 통해 자기 발견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작은 학교 모델은 대학식 교육과 전통식 교육 방법을 하나로 묶는 시도가 될 것이다. 삶과 공부 가 하나로 연결된 공부야말로 현대 승가교육이 추구할 바다.

에 대해 모두 8편의 글을 실고, 현 승가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다음은 기초·기본교육과 승가고시에 대한 능력·원호·법산 스님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법산스님(동국대 교수)

승가고시 시행 의의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승직 및 승과제도가 국가에서 과거에 준하는 인재 등용의 기회가 됐다. 승과제도를 통해 불교는 선·교학 승려를 배출하고 고려불교와 민족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학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명조대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승가고시가 실시돼 사산, 사명 등 훌륭한 승려를 배출했다.

불교 도입 170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불교는 한민족 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혜와 덕성을 갖춘

1급·2급 승가고시 정착시켜야

훌륭한 승가가 많이 배출돼야 하며 엄격한 승가교육과 도제양성은 필수적이다.

근래 들어 교육체계가 확립되고 각급 승가고시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3급 승가고시는 승가교육의 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3급 승가고시는 산림 내에서 정규 교과 및 전통 대중생활을 겸비해 여법하게 치러졌다. 다만 이를 기회로 향후 2급 및 1급 승가고시의 원만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법계 품수자를 배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종단 요소 요소에 배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승랍 10년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승가교육 전문화와 다양화로 대변되는 본격적인 승가교육이 시작돼야 한다.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용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알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아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삼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행성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오.

※ 좋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등등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운육방, 집터, 묘지, 조합동묘, 3천 카운트 25만원 홍형장전용 30만원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h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명품채널"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